

구속사적인 성경해석의 기둥들

*The Key Pillars of a Redemptive-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효과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및 완결적 이해를 위하여 -
- Towards a Christocentric or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황창기 (고신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한국동남성경연구원장)

목 차

1. 여는 말 ■ 16
2. 차이점 ■ 16
3. 성경의 근거 ■ 19
 - 3.1. 고린도후서 1:20 ■ 19
 - 3.2. 누가복음 24:25-27 ■ 20
 - 3.3. 누가복음 24:44-48 ■ 20
 - 3.4. 요한복음 5:39 ■ 21
 - 3.5. 요한복음 5:46 ■ 22
 - 3.6. 마태복음 13:52 ■ 22
4.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법들 ■ 23
 - 4.1. 구속사의 숲과 나무 관계 이해 ■ 23
 - 4.2.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 ■ 24
 - 4.3. 온 교회적, 만유(판타)적인 그리스도 ■ 25
 - 4.4. 클리우니 사각형 활용 ■ 28
 - 4.5. 출애굽 주제의 이해와 적용 ■ 30
 - 4.6. 언약의 중첩기 현상 파악 ■ 32
5. 닫는 말 ■ 34

요
약**구속사적 성경해석의 기둥들**

- 효과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및 완결적 이해를 위하여 -

본고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에 필요한 원리 몇 가지를 열거하였다.: 그레이다누스[S. Greidanus]가 제시한 7가지 방법, 출애굽주제, 클라우니 사각형의 이해와 적용 그리고 언약의 중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 교회적, 만유적 인격을 가지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만유의 대 변혁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해석에서 열쇠들 중의 '대표 열쇠'[Master Key]이다.

*The Key Pillars of
a Redemptive-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주요어

그리스도 완결적, 클라우니 사각형, 출애굽주제, 언약중첩기, 온 교회적 인격

Abstract

The Key Pillars of a Redemptive-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Towards a Christocentric or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Prof. Dr. Chang-Kee Hwang

In this paper I briefly spell out some basic ideas for a Christocentric and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ey are : a) S. Greidanus's seven roads to find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b) the Exodus Motif, c) Clowney's rectangular diagram and d) the Covenant Overlapping Period. Jesus Christ who represents the Person of Whole Church and Panta [πάντα:all]. It is crucial for biblical interpreter to understand that His death and resurrection is the Great Transformation of all things[πάντα]. All believers must be equipped with this perspective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for a proper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Bible. Christ plays the role of the master key for Biblical interpretation.

Keywords

Christotelic, Clowney's rectangular diagram, Exodus motif, Covenant overlapping period, Whole Church Person

1. 여는 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설교자는 알고 있다. 성경을 구속사적¹⁾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쇠로 삼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²⁾에 필요한 원리 몇 가지를 열거하고자 한다.

2. 차이점

* 황창기 교수는 부산 사범학교,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Westminster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석사 학위(MAR)와 신학석사 학위(Th.M.)를 받고,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에서 신약 전공으로 신학박사 학위(Th.D.)를 받았다. 미국 Calvin 대학에서 두 차례의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성경해석학을 연구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삼일교회를 개척하였고, 고신대학교 신약교수로 재직 중에는 대학교회도 개최하여 12년간 섬겼으며, 교목실장, 교무처장, 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한국 성경공회 (www.ksbsible.com)의 「바른성경」 신약번역 위원장, 한국성경신학회장으로 섬겼으며, 현재는 고신대학 은퇴 교수로 한국동남성경연구원(www.kosebi.org) 원장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 인격에 비춰 본 신약의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 등이 있으며, 곧 『그리스도 중심(완결) 성경이해와 그 실제적 설교』가 출간될 예정이다.

1) 언약적-역사적(해석)

2) 그리스도 완결의 성경 해석에 대하여 다음 글을 참조바람.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서울: 성광문화사, 2005(개정판)], 270-279.

—, "에베소서 4:7-10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고신신학 9』 (2007): 163-169. 이 책에 다시 실었다.

Peter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132-151.[한글 번역 이름 넣을 것] 이 책에 대한 비평과 저자의 응답이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ㄱ) G. K. Beale, "Did Jesus and Apostles Preach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s? Revisiting the Debate Seventeen Years Later in the Light of Peter Enns' Book, *Inspiration and Incarnation*", *Themelios* 32(2006): 18-43.

(ㄴ) Peter Enns "Response to Professor Greg Beale", *Themelios* 32/3(2007): 5-13.

(ㄷ) G. K. Beale, "A Surrejoinder to Peter Enns", *Themelios* 32/3(2007): 14-25.

그리스도 중심적(또는 완결적)성경 이해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핵심이심을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 저자가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찾는다. 그 다음에는 친히 왕국(autobasileia) 되신 그리스도 자신(Person)과 그 사역(works) -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의 현대적 교훈(의의)를 찾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렌즈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과 그리스도 완결적(Christotelic) 해석은 비슷한 개념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³⁾

[그리스도 완결적]이란 용어는 그리스도적(Christological)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Christocentric)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다.⁴⁾ 이유는 '구약이' 드러내는 그리스도 증거'에 대하여 이 말이 신약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더 잘 전달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란 말은 거의 모든 구약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인상이 짙다고

3) 뒤에 나오는 황창기, "에베소서 4:7-10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보라

4) Douglas J. Green, "N.T. Wright - A Westminster Seminary Perspective"(March 3, 2004) 2 n. 4

Hermeneutics and theology must be Christocentric, but the term 'Christotelic' allows me to add a helpful nuance to the idea of Christ-(or Gospel-)centered interpretation. In using this term I am picking up on language used by Richard B. Hays, "On the Rebound: A Response to *Critiques of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 of Paul*, "Paul and the Scriptures of Israel"(eds. Craig A. Evans and James A. Sanders; 1993), 75-96(77-78). Since I adopt a redemptive-historical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my model for describing the coherence of Scripture is primarily linear(i.e., a story, narrative) rather circular(i.e., system). Therefore, the gospel - the story of Jesus - is best understood when it is defined in terms of a narrative telos, a climax, an end, a goal("Christ is the climax of Israel's story") rather than as the "center point" of a theological system.

하겠다. 심지어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은 구약의 이야기와 인물을 지나치게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약점도 있다. 즉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무조건 그리스도’로 둔갑하는 모형론이 근거한 성경 이해 일변도의 폐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반면에 ‘그리스도 완결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구약 기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완성(결)’[telos]이라는 사실을 신약해석자들이 이미 알고서 구약을 읽는 것을 말한다.⁵⁾ 그러므로 대변혁 사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절정 [climax]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πληρώω] ‘완결’[telos], 또는 ‘완성’임을 고려하지 않는 성경해석은 옳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옳바른 성경해석은 그리스도 완결 해석[Christotelic interpretation]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 역사의 흐름 중에, 예수님 당시에 한정하지 않고, 만유를 충만하게[엡4:10] 하는 완결[완성]이란 점이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및 복음의 확산으로 이미 만유의 충만이 시작되었으며,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히12:22], 새 하늘과 새 땅계 21:1-8]을 맛보기 시작한 성도의 입장에서, 구원역사를 되돌아보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재림으로 변혁, 완성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여기서 맛보며, 또 그 변혁을 이루려고 힘쓰며 애쓰는 성도의 입장에서

5) Peter Enns, *ibid* 154 “To read the Old Testament ‘Christotelically’ is to read it *already knowing* that Christ is somehow the *end* to which the Old Testament story is heading” [강조는 저자의 것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멤버로서 그 생활의 지침을 찾고자하는 성경 해석이다. 즉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 왕국의 왕세자 및 공주가 된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이라 본다.

3. 성경의 근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왜 핵심으로 보고, 전하는가?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완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살펴보자.

3.1. 고린도후서 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⁶⁾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100% 성취되었다는 말이다.⁷⁾ 그리스도는 약속의 완결이다. 물론 이런 말은 종말론 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주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가고, 재림 때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6) 1:20 ὅσαι γὰρ ἐπαγγείλαντο θεοῦ, ἐν αὐτῷ τὸ ναὶ διὸ καὶ δι' αὐτοῦ τὸ ἀμήν τῷθεῷπρὸς δόξαν δι' ἡμῶν.[KJV For all the promises of God in him are yea, and in him Amen, unto the glory of God by us.]

7) God's promises find their fulfilment in Christ, indicating that the OT Scriptures should be read as pointing to Christ [ESV 1:20 comm. note]

3.2. 누가복음 24:25-27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⁸⁾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 어떻게 구약이 자신을 가리키는지를 이해시키시었다.

3.3. 누가복음 24:44-48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⁹⁾과 선지자의 글¹⁰⁾과 시편¹¹⁾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¹²⁾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¹³⁾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8) Luke 24:27 καὶ ἀρξάμενος ἀπὸ Μωϋσέως καὶ ἀπὸ πάντων τῶν προφητῶν διερμήνευσεν αὐτοῖς ἐν πάσαις ταῖς γραφαῖς τὰ περὶ ἑαυτοῦ.[ESV Luke 24:27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interpret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9) 모세가 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말한다.

10) 전[前]선지서는 역사서 즉 예호수아, 샷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이며, 후[後]선지서에는 이사야·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소[小]선지서(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가 포함된다.

11) 대표적인 것은 시편이다. 이 모든 구약 성경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음이 모든 죽속 전파될 것을 가리킨다.

12) πάντα τὰ γεγραμμένα ἐν τῷ νόμῳ Μωϋσέως καὶ τοῖς προφήταις καὶ ψαλμοῖς περὶ ἐμοῦ.(all things which are written about Me in the ^b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cthe Psalms)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죽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란 구약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메시아를 예언하거나 언급하는 모든 구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¹⁴⁾ 그와 반대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이란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 이 점을 다음 구절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3.4. 요한복음 5:39¹⁵⁾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복수[those]로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구약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어떤 방식일까? 구약 성경에서 전하는 그 클라이막스 또는 목표[end, goal]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달성된다

13) τὰς γραφάς (the Scriptures)

14) 모세의 율법,(창 3:15; 12:3; 22:18; 민 21:9; 24:17; 신 18:15; 선지자의 글,(삼하 7:12-16; 사 7:14; 9:6; 50:6; 52:13-53:12; 61:1; 렘23:5,6; 단 7:13,14; 단 9:24-27; 호 6:2; 미 5:2; 속 6:12; 9:9; 12:10; 13:7; 말 3:1; 4:2) 시편,(시2편;16:8-10; 22편; 69편; 72편 110편 118편[22-26절])

15) John 5:39 ἔραυνθε τὰς γραφάς, δέ: ὅμεις δοκεῖτε ἐν αὐτα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ἔχειν. καὶ ἐκεῖναι εἰσιν αἱ μαρτυροῦσαι περὶ ἐμοῦ.(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and it is they that bear witness about me)

는 말이다. 따라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먼저 그리스도를 일단 찾으려 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요 5:39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간파하였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져야 한다, 이 목적에서 비껴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치도록 배우더라도 진리의 지식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혜를 갖지 않고 우리가 무슨 자혜를 가질 수 있겠는가?”¹⁶⁾

3.5. 요한복음 5:46¹⁷⁾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시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6. 마태복음 13:52¹⁸⁾

16) Sydney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의 현대적 해석학 방법론』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김진섭·류호영·류호준 역, 서울 도서출판 이래서원, 2002 [1999]), 335에서 재인용

17) John 5:46 εἰ γὰρ ἐπιστεύετε Μωϋσέν, ἐπιστεύετε ἀνέμοι· περὶ γάρ ἡμοῦ ἔκεινος ἔγραψεν.(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of me.)

18) Matthew 13:52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διὰ τοῦτο πᾶς γραμματεὺς μαθητευθεὶς τὴν βασιλείᾳ τῶν σύραντων ὅμοιος ἔστιν ἀνθρώπῳ οἰκοδεσπότῃ, ὃστις ἐκβάλλει ἐκ τοῦ θησαυροῦ αὐτοῦ καινὰ καὶ παλαιά.

(Then said he unto them, Therefore every scribe which is instructed unto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unto a man that is an householder, which bringeth forth out of his treasure things new and old.)

“...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곳간’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흥미로운 것은 감추인 보화 비유[13:44]에서 ‘보화’와 여기13:52의 ‘곳간’의 헬라어는 둘 다 데사우로스[θησαυρός]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13:44의 보화는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이 ‘곳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¹⁹⁾ 이 예수님으로부터 새것과 옛것을²⁰⁾ 내어 와야 할 것이다. 새것과 옛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분되어진다.

지금까지의 여러 중언을 종합해서 요약하자면, 이처럼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중언하는 것이 해석자의 피할 수 없는 과업임을 깨닫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4.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법들

4.1. 구속사의 숲과 나무 관계 이해

주어진 본문은 전체 구속 역사의 흐름[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구원 역사의 구도를 파악해야 한

19) David E. Holwerda, *Jesus & Israel : One Covenant or Two?*(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136

"Jesus describes the disciples as a scribe trained for the kingdom of God and a householder who brings out of his treasure things old and new(Matthew 13:52). The treasure is Jesus Christ, the fulfiller of the law and prophets, whose fulfillment is the original binding and loosing. ... "[강조는 필자의 것]

20) ἐκ τοῦ θησαυροῦ αὐτοῦ καινὰ καὶ παλαιά

다. 먼저 해석자 또는 설교자는 그 당시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 밀하자면 성경 전체 맥락 [숲]과 특정한 구속 역사상[나무]의 메시지를 이해하여야 한다.²¹⁾ 우선 해석자 또는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 QT와 통독을 겸해야 한다.²²⁾

이 말은 해석적 원(순환논법)[hermeneutical circle]의 원리에 따라 성경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말과도 비슷하다. 누구든지 전체를 파악하기 전에는 특정 부분의 이해도 잘 안 되고, 각 부분을 파악하기 전에는 전체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분이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이며... 등등 여러 가지 배경 사정을 알면 알수록 그 편지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다.

4.2.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

성경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적[완결적]으로 하는 방법을 그레이디누

21)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는 참고할 책은 Craig G. Bartholomew and Michael W. Goheen, *The Drama of Scripture: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e Story*(Grand Rapids: B. Baker Academic, 2005); Vaughan Roberts, *God's Big Picture: Tracing the Storyline of the Bible*(Downers Grove: IVP Books, 2002) 등이 있다.

22)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QT와 통독입니다. QT는 성경을 깊이 읽기만 목표라면, 통독은 넓게 읽기입니다. QT가 정독을 방법으로 삼는다면, 통독은 속독으로 읽습니다. QT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는다면, 통독은 빨리 많이 읽습니다. 통독이 전체의 조망을 우리 시야 속으로 들여놓는다면, QT는 성경을 삶 속으로 체득하게 합니다. 통독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면, QT는 그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동시에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QT는 현미경이고, 통독은 망원경입니다. 통독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숲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QT를 통해서는 숲 속의 나무 하나, 새와 풀벌레 한 마리, 꽃 한 송이를 정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통독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보려 한다면, QT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귀를 바짝대고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질과 스타일, 행습에 따라 무게 비중이 다르더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기현, '성경을 통독하자' <http://www.news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06>]

스[Sydney Greidanus]는 그의 책²³⁾ 제 6장에서 7가지 길[way]을 제시하고 있다.

- (1) 점진적 구속 역사의 길
- (2) 약속-성취의 길
- (3) 모형론의 길
- (4) 유추의 길
- (5) 통사적 주제들의 길
- (6) 신약 관련 구절 사용의 길
- (7) 대조의 길

4.3. 온 교회적, 만유(판타)적인 그리스도²⁴⁾

그리스도 자신의 인품[Person]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나 인간은 시공간에 얹매인 피조물이기에 성경 본문을 구원 역사가 전진하는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적으로 1세기, 공간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가두어놓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점이 신학의 오류였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1세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개 줍는 사람으로 시공간에 묶어 이해하려 하였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재구성한 [reconstructed] 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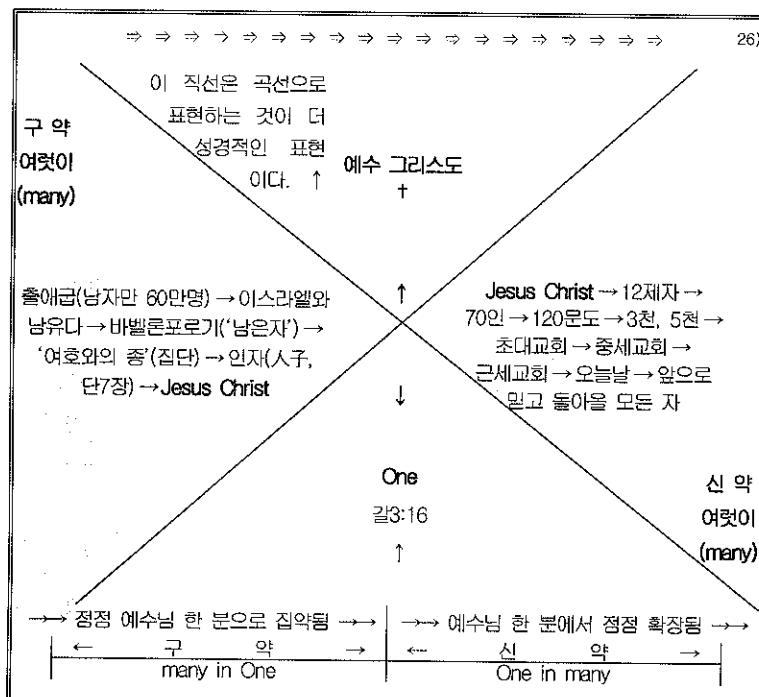
같은 오류를 복음주의자들도 범하였다. 특히 계시 역사가 전진하는 맥락에 따라 오신 분이라, 시공간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23) Sydney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의 현대적 해석학 방법론」 303-403
송명목,『신약 해석학: 구원제시사적 해석을 중심으로』(부산: 도서출판 신언, 2006), 111-117

24) 황창기,『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이해』(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16-51

정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2천년이란 간격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분이 되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과거 2천 년 전에 사시던 분으로 성도들과 거리가 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 중언하는 예수님을 다음 도표²⁵⁾에서처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요, 성령의 사람이며, 동시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천상의 성도와도 연합된,



25) 황창기, 필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박정진)이 그린 것

26) 황창기,『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이해』(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107-111

교회 성도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성도, 즉 구약성도, 신약성도, 미래성도, 천상성도[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함께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교회에 속하여 있다. 즉 아래 도표에 표시된 온 교회적이고 만유적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한 분]는 신구약 어느 본분에도 해석학적 열쇠와 적용 점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런 분이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마 4:1-11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²⁷⁾ 아래 본문과(각주 22의) 출처 부분처럼 이해한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Person]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2천 년 전 그 당시 그 분에게만 일어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일 외에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기사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의 제반 상황들 - 즉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등을 그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현상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 식으로 이해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승리의 사건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으로 여긴다. 즉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이기신 것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인격적 연

27) Jesus' temptation is the counterpart to Israel's testing in the desert. As in Number 14:34, the 40 days represent 40 years. This event looks back to Deuteronomy 8:1-5, which Jesus cited in response to one of the temptations. Again we see Jesus presented as the true or ultimate Israel, the Son of God. Indeed, the experience of the nation of Israel was the type, the shadow that pointed to what Christ would later experience. The real ordeal and proving of Israel as the son of God was accomplished by Jesus, the ultimate Israel and Son of God. The temptations Jesus faced represent the kinds of temptations every human being experiences: those generated by the physical drives, those that appeal to pride and those that stem from a desire to possess(cf. 1Jn 2:16). But each was also a uniquely Messianic temptation. Note that Satan did not merely appeal to hunger or pride in Jesus but couched the temptations in terms of a challenge to Jesus' divine right: *NIV Spirit of Reformation Study Bible*,(Grand Rapids: Zondervan, 2003) 1547

함에 의한 '나 자신'의 승리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단지 이 기사는 성도가 시험당할 환경, 경우, 목적, 대처방법, 구비할 무기에 대한 성경지식 등을 안내하는 정도로 여긴다. 즉 그저 예수님이에게 온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 '예수님의 시험' 기사는 '메시아 사역 데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니까, 이 기사가 새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계시하고 있는 점을 놓치게 된다. 이 점이 개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범하는 오류이다. 그 주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 못하는 '신학적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의 변혁에 따른 성령론 이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 이해, 실질적인 종말론 이해와도 직결된다. 그리스도의 변혁에 따라서 이미,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 종말론적인 '특권'은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추구하여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4.4. 클라우니 사각형 활용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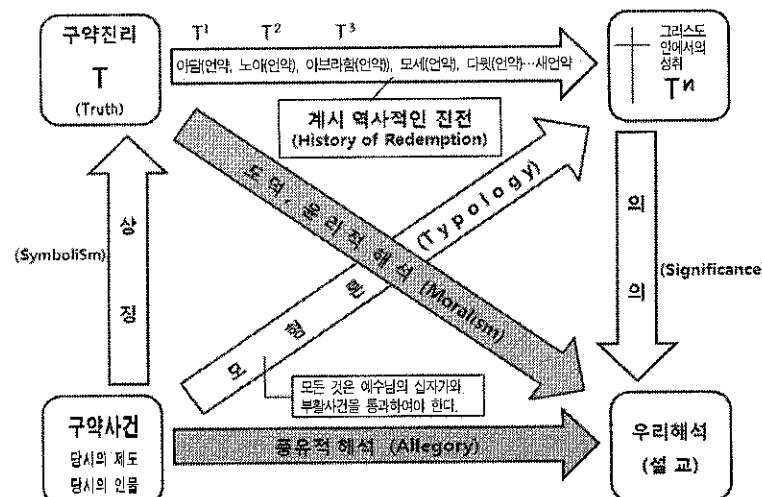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Westminster Seminary]의 대학원장이었던 클라우니[E. Clowney]가 소개하였다. 그는 구속사적 성경해석과 설교에 한 평생을 보냈다. 그는 사각형²⁹⁾을 고안하여

28) 참조, 황창기, 구원역사적 성경해석 도해[클라우니 사각형], 한국 동남 성경 연구원 (<http://www.kosebi.org/>)신약 자료실; 그리고 그 적용의 실례는 본서에도 찾아볼 수 있다.

29) Edmond P. Clowney,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 in Samuel T. Logan,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모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뒤에 그 구체적인 적용까지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간단히 '사각형'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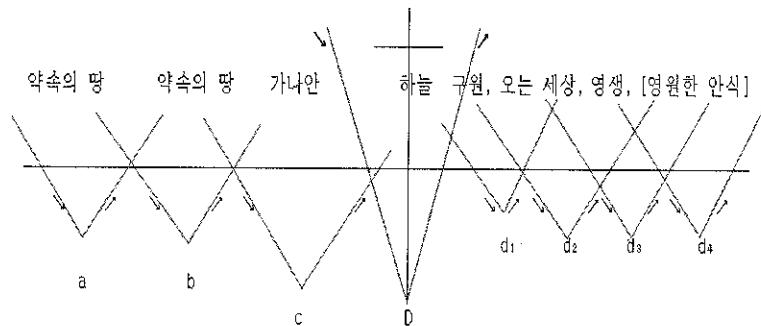
가장 주요한 것은 구약의 사건, 제도, 인물[예수님 십자가 사역 전에 일어난 사건 포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아래 사각형에서 검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성경이해[검은 선]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5. 출애굽 주제의 이해와 적용

Jr.(ed), *The Preacher and Preaching: Reviving th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1986) 179 ; [좀 더 개선한 것이 다음 글에 나옴] G. P. Hugenberger, "Introductory Notes on Typology", in G. K. Beale(ed), *The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s? Essays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339-341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제자가 Redemptive-Historical Hermeneutical 'Map'으로 소개] Dennis E. Johnson,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7), 230-31



[눅 9:31/엡 4:8-10]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예수님의	주님과 연합된	백성인 나의
출애굽	출애굽	출 바벨론	출 예루살렘	출 좌악, 출 사망, 출 암흑, 출 사탄
a	b	c	D	d ₁ d ₂ d ₃ d ₄

위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성경에는 출[出]애굽 주제³⁰⁾가 많이 나오나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a-d].

ㄱ] 그 중에서 원형은 예수그리스도의 출[出] 예루살렘[D]이다. 즉 아브라함의[족장들의]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출애굽부터, 모세 시대의 아스라엘 성들이 430년 만에 돌아오는 출애굽, 다윗의 출[出]俚сет,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출[出] 바벨론 등등 여러 가지이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내려오셨다가 자기 민족이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배도하는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출[出]예루살렘이 원초적이고, 근본이라는 말이다. 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도 함께 구원받은 것을 출애굽이라 표현한다. 즉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는

30) James B. Jordan, 「새로운 시작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이동수, 정연해 공역, 서울 도서출판 보고스, 2002 (1988) 253-261

세상에 속하여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즐기는 것을 역시 출애굽(=성도들의 출 죄악, 출 사망, 출 흑암, 출 사탄)이라 한다.

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출애굽 주제(exodus motif)의 기초를 ‘모세시대의 출애굽’으로 삼고, 시대 순으로 각 사건을 이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예루살렘]도 시대 순으로 나열하여 그 중의 하나로 본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학계에서 말하는 엑소더스 주창자들은 바로 이 핵심 점을 보지 못함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즉 시공간에 얹매인 십자가 사건[그리스도의 엑소더스]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ㄷ]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의 기초를 예수님의 엑소더스(출애굽)로 본다. 말하자면 근본적 출애굽[Archetypal Exodus]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출 예루살렘(눅 9:31; 참조 엡 4:8-10)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천지개벽보다 더 큰 만유의 변혁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사건과 신약 성도 각자의 출애굽을 포함한 모든 엑소더스의 기초가 되고도 남는다. 그리스도의 출 예루살렘[엑소더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주의의 옛 예루살렘을 버리는 것이요, 이는 곧 전체 옛 세상[whole old world]을 버리는 것이다.³¹⁾

ㄹ] 따라서 엑소더스 주제의 모형론적 적용원리를 아래와 같이 새로 정립해 본다.

“사건의 이해는 구원사의 전진에 비추어 시대별로(chronologically) 하되, 그 적용은 그리스도 중심적(Christocentrically)으로, 또는 그리스도 완결적(Christotelyically)으로 시행하라” 이는 그리스도 완결적 성경해석에 매우 주요한 법칙이다.

ㅁ] 엑소더스 주제의 결과로 따라오는 특징³²⁾은

31) Jordan, 「새로운 시작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 255

32) Jordan, 「새로운 시작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 258-260

- (1) 가나안 [안식: 히 3:4]으로(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 (2) 돌아올 때 반드시 선물[gifts]을 가지고 왔다.
- (3) 돌아올 때마다 가지고 나온 선물로는 반드시 주님을 위한 거소를 세워 제사[예배]를 드린다. 즉 단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솔로몬)성전 건설, (제2)성전 건설로 이어졌다. 이 모든 사건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루살렘]로 받은 오순절 성령 선물로는 신약 교회를 건설하였고, 또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엡 4:8-10]

4.6. 언약의 중첩기 현상 (파악³³⁾)

언약 중첩기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겹치는 기간을 말한다. 그 원형이요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관찰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즉 그 당시 유대나라,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제물[짐승], 율법 등이 존재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참 성전, 참 대제사장, 참 제물, 천국 복음으로 즉 오는 세상으로 오시어 옛 창조와 겹치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것도 중첩현상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얼마 동안 같이 겹치어 사는 기간이 있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그리스도가 중첩되는 시기가 있었다.

33)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 인격에 비춰본 신약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8(2005)] 283-85

구약에서 아담 언약 마지막 어느 기간 동안은 노아언약기간과 중첩되고, 노아언약 기간 마지막에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시작되어 서로 겹치는 기간이 있었다. 이 현상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모세언약과 다윗언약; 모세언약이 다윗언약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윗언약과 회복 언약으로 바뀌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천될 때도 일정 기간의 중첩기가 있었다. 언약 중첩 기간에는 중첩현상도 있었다.

다윗과 미갈의 다툼도 언약 중첩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엘리 제사장,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울왕은 퇴조하고 다윗 왕조가 7년 간 어려운 기간을 지난 다음 예루살렘 [다윗 성]에 도읍을 정하고, 법궤가 좌정하여 왕조가 흥왕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정치적 변천은 언약 중첩기적 현상이다. 나아가서 사울왕가를 진멸시키는 중에 왕궁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사울 왕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제거되는 것과 대조된다. 즉 옛 것은 점점 줄어지고, 새 것은 점점 증가한다.

제 2성전 건축스 3:7-13]에서도 중첩현상을 볼 수 있다. 예수 살렘에 돌아온 스룹바벨, 예수아, 레위 사람들 중심의 전 역사 감독[8-9절]/ 지대 놓임[10절]/ 모든 백성이 즐거이 여호와를 찬송하였다[11절]. 그러나 그 중에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12절]. 이 때 통곡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혼재한 것도 물론 언약의 중첩현상이다. 특히 학개 2:3이 이를 증언한다. 물질적인 성전 자체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은 이전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컸다. 여기서 그 특징인 퇴조와 흥왕(decrease - increase)을 읽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여야 하겠다. 즉 옛 것(옛 언약/창조)은 버리고 새 것(새 언약/창조)에 신실하지는 주제로 얼마든지 적용 점을 찾을 수 있다.

신약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옛 불신의 때이냐? 아니면 믿은 이후의 경험을 기록한 것인가는 엄청난 대립각이 서 있다. 이것도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중첩현상을 기록한 것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5. 닫는 말

지금까지의 해석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을 별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천지개벽보다 더 큰 엄청난 변혁[Transformation]이란 사실을 예사로 알고 지나온 것이다. 그래서 역사성을 무시한 알레고리[풍유]적 상징주의가 난무하였다.

예수님의 변혁에 기초하여 성경을 보면 구속역사의 전진에 따른 의미를 밝히면, 이런 ‘묻지 마, 그리스도’식은 사라질 것이다. 윤리 도덕적 이해도 줄어들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이 옛 세상이 마감하고 새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며[히9:26], 예수님이 ‘죽으심 - 부활 - 오순절 - 성령’의 임하심도 옛 세상이 마감하고 오는 세상(Age to come)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실현은 주다해[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또한 주님의 재림을 내다본다.

앞에서도 이미 밝힌 대로 ‘종말론’은 부분 과거론(partial preterism)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는 주님과 신비롭게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히었고(엡 2:2-5), 주님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다.[골 3:4].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여 있다는 점[히 9:22]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는 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만유가 온전히 변혁할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동시에 오메가’이시다³⁴⁾. ‘시작’과 ‘끝’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헬라어 어법으로는 “시작[A] 즉[W]”³⁵⁾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삽입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 이 오심으로 시작이요 끝이 된다. 시작과 끝이 공존한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중심[완결]적 성경해석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을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요소는 각각 커다란 주제이기에, 나열만 한 편이라, 서로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도 있다. 사실 그리스도 중심[완결] 해석에는 그레이디누스[S. Greidanus]가 제시한 7가지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출애굽주제, 클라우니 4각형 그리고 언약의 중첩에 대한 이해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온 교회적, 만유적 인격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해석에서 열쇠들 중의 ‘대표 열쇠’[만능 열쇠: Master Key]이기 때문이다.

34) Revelation 22:13 ἐγώ τὸ ἅλφα καὶ τὸ ὄ, ὁ πρῶτος καὶ ὁ ἔσχατος, ἡ ἀρχὴ καὶ τὸ τέλος.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여기서 καὶ(and)는 동격 즉 epexegetic genitive로 볼 수도 있다. 참조: M. Zerwick, Biblical Greek, 1963(1994 6th reprint), ss.45-46.

35) τὸ ἅλφα καὶ τὸ ὄ.